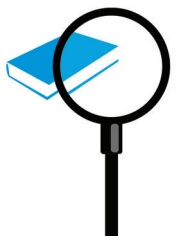


‘K컬처’는 어떻게 세계문화를 리드하는 반열에 올랐을까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문화는 유전자를 춤추게 한다

장수철 지음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 학창시절에 배웠던 ‘생각을 한다’, ‘유회를 즐긴다’, ‘언어를 사용한다’, ‘노동을 한다’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 각각은 그 나름의 논리와 이유가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요인을 하나 꼽는다면 ‘문화’가 아닐까 싶다. 문화를 만들고 활용한다는 것은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한다. 나아가 더 나은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기꺼이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인간이 지닌 중요한 장점이자 덕목들이다.

역사 이래로 인간의 문화 창조력은 생존과 직결된다는 것을 문명의 흐름은 보여준다. 매머드라는 종이 멸종하게 된 데는 기후 변화 때문이었다. 물론 인간의 무분별한 사냥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었다. 오래 전 추운 기후에서 적응해 살아남은 매머드에게 위기가 닥친 것은 빙하기 이후 날씨가 따뜻해지면서였다.

장수철 식물학 박사(연세대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자연은 수능 시험처럼 문제를 한 번 통과했다고 해서 종의 연속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다시 말해 동물들에게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자연의 압력을 이겨내야만 생존할 수



있으며 종의 진화도 담보된다는 것이다.

그에 반해 인간은 문화로 자연 압력을 견뎌내고 그에 맞서 생존법을 강구해왔다. 동물을 사냥해 가죽을 벗겨 옷을 만들고 추위를 피하기 위해 집을 짓고 불을 피운다. ‘문화적 도구’를 활용한 덕분에 다양한 외부적 압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장수철 교수가 최근 펴낸 ‘문화는 유전자를 춤추게 한다’는 오늘의 문명을 견인한 유전자와 문화를 매개로 한 진화의 역사를 조명한다. 저자는 생물학의 폭넓은 세계를 만날 수 있는 ‘생명과과학의 세계’, ‘진화와 인문학’ 등 여러 강좌를 운영 중이며 ‘아주 특별한 생물학 수업’ 등을 펴냈다. 특히 ‘읽고 쓰고 강의하는 시간’ 외에는 주로 BTS와 비틀즈를 즐겨 듣고 식물을 관찰할 만큼 음악에 대한 감수성도 깊다.

우리 민족은 문화하면 뚝배기라면 서러워할 만큼 우수성과 잠재력이 풍부하다. 오늘날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K팝 열풍은 이를 방증한다. BTS를 비롯해 블랙핑크, 아이브 등은 국내를 떠나 세계에서 인정받는 K팝 그룹이다.

이들을 보면 자부심도 자부심이지만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세계의 문화를 리드하는 반열에 올랐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K팝 외에도 K드라마, K영화 등으로 대변되는 K컬처에는 분명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요인이 있다. 저자는 특정 문화가 많은 문화권에서 선택되고 선호된다면 그만큼 이유가 있다고 본다. 한마디로 ‘유전자 차원’의 영향력 때문이라는 것이다.

장 교수는 “춤의 즐거움은 인류의 모방 본능을 빼놓고



이해하기 힘들다. 모방은 인류 보편의 특징으로 우리의 유전자에 새겨져 있다”고 언급한다. 가사와 잘 부합하는 ‘포인트 안무’는 모방 본능을 자극하며 아이들의 ‘깡뚱무’는 함께 춤을 따라 출 수 있게 하는 흥겨움, 동질감을 선사한다.

책은 당대 문화에 대한 생물학자의 유쾌하면서도 흥미진진한 시선을 담고 있는 한편, 진화론의 최전선에 있는 ‘유전자·문화 공진화론’에 대한 부분도 다루고 있다.

사실 찰스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인간의 진화는 다루지 않았다. 이후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에서 인간도 자연선택이라는 진화의 대상에서 예외는 아니라고 했다.

다만 인간에게는 이타성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표현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을 내놓지 않았다.

후대학자들은 진화론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닌 여전히 진화하는 이론이라는 관점을 견지한다. “유전자·문화 공진화론 역시 진화론의 저변 확장, 구체화, 정밀화 과정에서 나온 이론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이다.

이밖에 책에는 인간의 성적 진화, 가족 관계, 소통 능력과 사회성, 농업혁명, 문화적 차이와 진화 등 문화의 다양성과 연계된 다채로운 분야가 망라돼 있다.

〈바들비·2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세계를 휩쓸고 있는 K팝 열풍은 우리 민족의 문화에 대한 우수성과 잠재력을 방증한다. 방탄소년단(BTS) ‘아이돌’ 콘셉트 사진.

/연합뉴스

요즘 어른의 부머 경제학

전영수 지음

1955년~1974년 태어난 베이비부머 집단, 그리고 베이비부머와 밀레니엄 세대를 잇는 X세대가 ‘요즘어른’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퇴직 이후에도 경제력과 소비력을 유지하며 새로운 경제 주체로 부상한 이들은 단순한 고령층이 아니라, 자산·정보·취향을 고루 갖춘 능동적 소비자라 평가받는다.

사회경제학자 전영수 교수가 최근 펴낸 ‘요즘어른의 부머 경제학’은 이들을 ‘요즘어른’이라는 이름으로 재정의하며 삶의 무대에서 물러난 노년층이 아닌 경제의 중심축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저자가 말하는 ‘요즘어른’이란 단순히 나이만 든 이들이 아니다. 이들은 퇴직 후에도 집과 자산, 학력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능동적인 소비를 지속하며, 취향과 가치에 따라 시장을 재편하는 주체들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과거처럼 자녀 중심의 소비에 머무르지 않고 ‘나’를 위한 소비, ‘삶의 질’을 위한 소비에 더 큰 가치를 둔다는 점이다. 의료·여가·자기개발·취향소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조용하지만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기업들에게도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 되고 있다.

책은 그들의 소비 패턴과 삶의 태도를 분석해 20가지 비즈니스 키워드로 정리하고, 고령화 시대에 대응할 새로운 시장 전략을 제안한다. 또한 단순히 고령층의 경제활동을 통계적으로 보여주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요즘어른’을 새로운 소비 주체로 보며, 앞으로의 사회와 시장이 어떤 시기와 전략을 가져야 할지를 제시한다.

저자는 “부머 경제학은 세계가 주목하는 대형 화두”라며 “뭐라도 해야 하는 중장대한 형국, 1700만 베이비 부머가 ‘집’이 아닌 ‘할’이 될 때 한국사회도 다시 희망을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라이프·2만50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교사와 학부모, 어디로 가는가?

한만중 외 3인 지음

5월 15일, 스승의날이 다가오지만 스승도, 제자도, 학부모도 표정이 밝지 않은 날이다. 2023년 7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20대 교사가 생을 마감했다. 이른바 ‘서이초 사건’으로 전국의 교사들이 분노했다. 학생인권조례와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교권 추락의 주범으로 지목됐고, 교권보호 5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해결됐을까? 아니다. 상황은 더 복잡하고 심각해졌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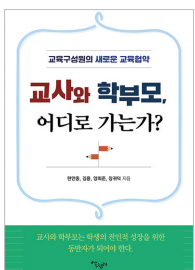
한만중 등 교육 법·정책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학교를 교육의 공간으로 되살리기 위한 해법을 고민하며 ‘교사와 학부모, 어디로 가는가?’를 펴냈다. 책은 학교 현장에서 나타난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와 일련의 상황을 꼼꼼하게 짚으며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는다.

저자들은 열악하고 권위적인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교사도 노동자라는 담론이 확산되고, 교원 성과급 제도 도입으로 교사가 평가의 대상이 된 점이 현 상황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한다. 여기에 수시 입학 전형 확대가 교사의 진화 지도보다 학부모의 지원을 더 중요하게 만들고, 학교폭력 관련법의 제·개정 역시 본래 취지와 달리 교사와 학부모 간의 협력 관계를 어지럽혔다고 지적한다.

문제는 교사와 학부모 간의 인식 차이다. 어디까지를 ‘정당한 민원’으로 볼 것인가? 미국, 일본 등 해외 사례를 보면 교사와 학부모의 역할, 권리, 의무가 교육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 또 교권침해를 막기 위해 학교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고, 학부모 참여를 현실화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학교가 진정한 교육의 공간으로 되돌아가고, 학생이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부모가 불신의 벽을 허물고, 거래적 관계에서 벗어나 상호 존중과 협력의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살림터·1만7000원〉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화학으로 읽는 플라스틱 연대기

배진영·라병호 지음

코에 빨대가 박혀 괴로워하는 바다거북이 영상을 본 적이 있는가? 이 영상은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플라스틱은 순식간에 환경을 파괴하는 악의 축으로 낙인찍혔다. 하지만 동시에 플라스틱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있을까? 일회용 용기, 포장재, 옷과 가방 같은 섬유,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건축 자재까지. 우리의 일상은 플라스틱으로 가득 차 있다. 하지만 우리는 과연 이 물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배진영·라병호 석유화학 분야 전문가들이 쓴 ‘화학으로 읽는 플라스틱 연대기’는 플라스틱이 어떻게 등장했으며, 현대 사회의 여러 산업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플라스틱(plastic)은 고분자 합성수지를 원료로 만든 소재로, 이름은 ‘조형할 수 있다’는 뜻의 고대 그리스어 ‘플라스티코스(plastikos)’에서 유래했다. 열과 압력을 가해 쉽게 모양을 만들 수 있는, 말 그대로 성형하기 좋은 재료라는 의미다.

플라스틱의 역사는 산업혁명 시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천연수지에서 얻은 셀룰로이드가 플라스틱의 기원으로 꼽히며, 제2차 세계대전 전후로 석유화학 산업이 급성장했다. 1933년에는 오늘날 가장 널리 쓰이는 폴리에틸렌(PE)이 발명된다.

플라스틱은 가볍고 저렴하며 부식되지 않는 내구성까지 갖춰 다양한 산업의 발전을 이끌며 현대인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책은 고대부터 모든 발명이 인간의 필요에서 비롯됐음을 거듭 강조한다. 플라스틱이 오늘날 환경의 가장 큰 적으로 떠오른 만큼, 이제는 친환경이라는 필요를 충족하는 것이 우리 석유화학 산업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다.

〈자유이카테마·2만원〉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예남향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5년 5월호

2025년 4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2025 광주 방문의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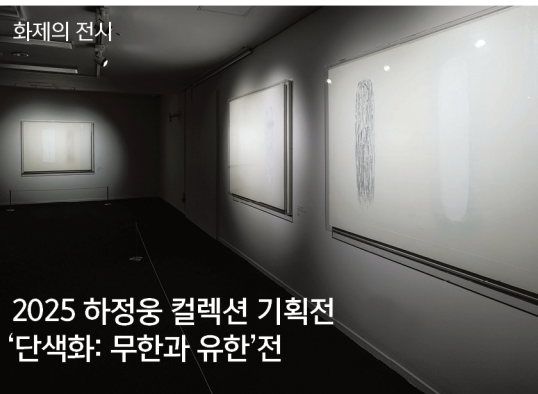
무등산에 올랐다



- 무등산이 낳고 키운 생명과 문화
- 생명의 춤, 무등산의 봄꽃
- 무등길 위에서 무등의 정신 이어갑니다
- 무등산의 풍경과 서사를 담다: 사진작가 임채욱 ‘무등산’전



국가정원 흑두루미 시간여행



2025 하정웅 컬렉션 기획전 ‘단색화: 무한과 유한’전



예향 초대석

여성국극 1세대 배우, 발탁 명인

조영숙

“무대에선 눈으로 물어도 입으로는 웃겠다”

예향과 함께하는 남도투어⑦



화사한 전라남도 정원의 봄

해외문화기행⑧ ‘예술아지트’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



오동진의 ‘전자적 시네마 사진’

가장 위험한 것은 잘못된 확신, 연상호 ‘계시록’의 믿음



호남의 누정⑧-에필로그

곧은 선비정신과 풍류를 마추는 시간

